시민 행복·지역경제 활성화 보폭 넓힌다

노사민정협 포럼 관내 산단 현장 간담회
김삼호 구청장 현실 소통 적극행보 눈길

광주 광산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노사민정이 참가하는 공동포럼을 개최하고, 관내 산단의 현장을 직접 살피는 등 현실 소통에 적극 행보를 보이고 있다.

3일 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구는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사민정 공동포럼'을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개최했다. 공동포럼은 50여명의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이 참석해 진행됐다.

포럼은 고영삼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영집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장이 기조발제로 광주 거버넌스 현황·성과·한계를 소개하고, 지역 현실과 특성을 반영한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 법인 설립·운영에 노사민정의 협력이 절대적이었음에도 지난 5년간 신뢰와 책임이 미약했다"며 "지역 여러 단체들이 함께 노사민정 협력의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 특강에선 유송자(유쾌한 송자 아카데미)원장이 '행복한 삶·행복한 웃음 만들기' 강연을 했다.

구는 관내 산단도 방문해 현장 소통에 나섰다. 평동산단 수출용 포장 전문업체인 ㈜인팩과 스프링클러 제작업체 (유)태호를 방문해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고충, 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에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구는 지난 5월부터 매월 기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실시해 현재까지 11곳을 방문했다.

기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지난달 김삼호 구청장은 지역 기업인 등 100여명과 함께 지역경제 발전 의지를 다지는 '어등산 별빛산행' 행사를 개최했다. 어등산 달빛산행은 버스킹 공연 등도 더해져 가을 야간 산행의 낭만을 더했다.

김삼호 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관내 기업들이 고충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시민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영봉 기자

건축 민원 처리 문자전송서비스

건축인허가 등 112종 관련

광주 광산구는 최근 집과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 등 민원인에게 건축행정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문자전송서비스 체계를 광주 자치구 최초로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문자전송서비스 구축으로 건축주를 비롯한 민원인에게 건축행정 처리과정마다 그 상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단, 민원 접수 시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민원인에 한해서다.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축행정 민원은 총 112종으로 건축인허가, 주택인허가, 건축물대장 등의 접수·보완·처리 등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실시간 문자안내 서비스로 불편을 줄이고 업무의 정확성은 높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윤영봉 기자

광주 광산구 평동 장록마을에 거주하는 이기덕 할머니가 장록경로당에서 마을주민의 축하를 받으며 자녀들이 차린 100번째 생일상을 받았다. /광산구 제공

"100번째 생신 축하드려요"

장록마을 이기덕 할머니 생일상 축하잔치

광주 광산구는 최근 평동 장록마을에 거주하는 이기덕 할머니가 장록경로당에서 마을주민의 축하를 받으며 자녀들이 차린 100번째 생일상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1920년 9월 5일 평동 명화마을서 태어난 이 할머니는 평동 최고령 어르신이다. 젊었을적 결혼과 함께 장록마을로 이사해 평생 농사를 지으며 슬하에 2남 3녀를 뒀다. 어르신의 한 친지는 생일잔치서 이 할머니의 장수비결로 소식과 채식위주 식단을 들었다.

이날 축하 자리는 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공직자들도 참석해 자녀들이 마련한 음식을 마을주민과 함께 나누며 어르신의 장수를 축하하고, 건강을 기원했다. 지사협 위원들은 미리 마련한 건강온열매트를 선물하며 지역사회의 정을 전했다.

김윤곤 평동지사협위원장은 "건강하게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의 생신을 축하드리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 1일 우산동 풍영체육시설단지 특설무대에서 '제28회 광산구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광산구 제공

광산구민의 날 기념식 개최

김병우 위원장 등 6명 광산구민상 수상

광주 광산구는 지난 1일 우산동 풍영체육시설단지 특설무대에서 구민의 자긍심·애향심 고취와 화합 단결을 위한 '제28회 광산구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광산구·시와 구의원·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식은 구민헌장 퍼포먼스·구민상 시상·김삼호 광산구청장 기념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병우 운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 위원장이 나눔 저금통 사업 추진, 복지공동체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효·나눔복지' 부문 광산구민상을 수상했다.

홍기은 동지사협회장은 '자치공동체공헌', 박경숙 그린발레단장은 '문화예술교육', 김선광 ㈜대성포장산업 총괄CEO는 '지역경제', 김춘석 광산구체육회 부회장은 '생활체육', 유재신 ㈜버들시스템 대표는 '친환경' 부문에서 각각 광산구민상을 받았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기념사에서 "'광산의 시대'가 밝아오고 있다"며 "앞으로 광산구 30년을 밝힐 미래비전 구체화하고, 그 토대 위에서 시민 개개인의 삶이 행복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영봉 기자

"한 달에 책 한 권 함께 읽어요"

첨단도서관, 10월~11월 책읽기 프로그램 진행

광주 광산구립 첨단도서관은 10~11월 책 한 권을 정해 함께 읽고 토론하고, 저자 강연도 듣는 '한 달간 책 한 권 함께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 독서동아리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책읽기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광산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달 함께 읽을 책은 최복현 작가의 '에로스 심리학'이다.

시민의 독서를 돕기 위해 구는 23·30일 저녁 도서관서 각각 독서토론과 작가 강연회를 연다. 토론은 기윤희 강사가 '왜 페미니즘인가'를 주제로 진행하고, 강연에는 최 작가가 나서 그리스·로마 신화의 인문학적 해석을 들려준다.

11월 함께 읽을 책은 이기호 작가의 '누구에게나 친절한 동네 오빠 강민호'다.

토론과 강연은 각각 같은 달 21·28일 예정됐다.

도서관 관계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책을 접하는 사회적 책읽기의 장에 많은 분들이 참여 바란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안내는 첨단도서관(062-960-8297)으로 하면 된다. /윤영봉 기자

지투리 소식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선정

광주 광산구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분야에 선정돼 국·시비 2억 9,600만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전통시장 점포 내에 불꽃·연기·온도 등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하고,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관할 소방서와 상인에게 통보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구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통시장 화재에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잘 추진해 전통시장 이용과 영업이 더 안전한 기반 위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겨울 외투 모으기 캠페인

광주 광산구는 오는 18일까지 옷장 속 잠자는 겨울 외투 모으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않는 옷을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4층 여성가족과의 자율기부함에 넣으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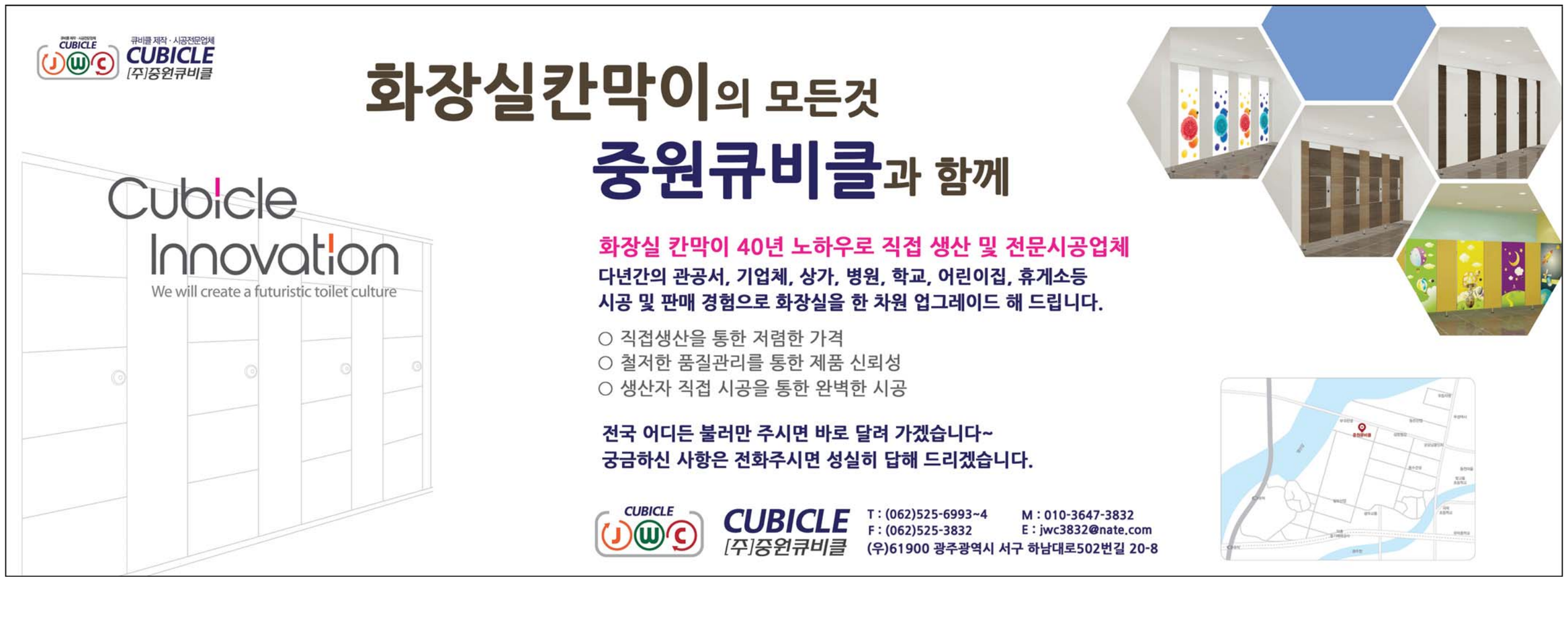
현재까지 광산구에 등록된 외국인은 1만 3,386명으로 광주 전체(2만 3,177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40% 정도는 겨울 추위를 겪어보지 못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 출신이다. 구는 기부한 옷은 깨끗이 세탁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겨울을 앞두고 옷장을 정리하고 타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이웃에게 따뜻한 정도 나눠달라"고 말했다.

월곡2동 산정공원 둘레길 조성

광주 광산구는 월곡2동 주민 휴식처인 산정근린공원에 둘레길이 들어선다고 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특별교부세 5억원과 광주시 지원금 3억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산정근린공원 둘레길 조성을 마무리한다. 산책로와 안전난간·운동시설도 설치한다.

또, 유아 숲 체험원과 휴게시설이 들어선다. 산정근린공원은 지난 1990년 만들어진 이후 둘레길 조성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구는 공사에 앞서 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안전하고 걷기 편한 도심 공원으로 산정근린공원을 새롭게 단장하겠다"고 말했다.